

“소통하는 대한수의사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수의사”

<h1>보도자료</h1>	 <p>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p> <p>회 장 : 허 주 형 위 원 장 : 조 호 성</p>
---------------	--

2020년 7월 7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서광근 간사)
전화 : 031-702-4332 / 전송 : 031-702-1020
- E-mail : ryuksa2@kvma.or.kr Homepage : www.kvma.or.kr
- 총 2매 제공일 : 2020년 07월 07일

중국내 G4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대응 필요

- 지난 6월 29일자 중국 산둥 농업대학 수의학과와 중국 바이러스 통제 예방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중국내 G4 신종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이 바이러스가 2009년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계통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논문내용은 2011년부터 2018년 까지 채취한 30,934건의 돼지시료에서 165개의 돼지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분리되었고 초기에는 G1에서 G6의 6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G4에 해당하는 바이러스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 폐포상피세포에서 높은 증식률을 보이는 특성을 확인하였다고 함.
- 또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양돈장 근로자 338명과 일반 가정 거주자 230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양돈장 근로자 35명

(10.4%) 및 일반 가정 거주자 10명(4.4%)에서 항체 양성결과가 확인되었음.

- 그러나, 돼지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항체 양성환자에서 임상 증상 기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결과의 해석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사람으로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G4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국내에서 진단된 검체의 재조사(H1N1 G4 모니터링 검사), 국내 돼지에서의 모니터링 검사 진행 등의 선제적 예방 조치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추가 관리하기를 방역 당국에 요구함.
- 중국에서의 생돈 수입 금지 및 수입돼지에서의 G4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추가 등 현행 검역 조치를 유지, 강화하기를 요구함.
- 만약 이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최근 코로나 19와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질병 대응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돼지 사이 및 돼지끼리의 전파 등에 대해 생활방역 및 차단방역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
- 돼지 유래의 바이러스라는 오해로 인해 국내 돈육 소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돈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 과정에서 통제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적극적인 소비가 될수 있기를 제안함. <끝.>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